

불교사상 속의 가람

원행 |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목차

- I. 머리말
- II. 가람의 의미
- III. 가람에 대한 연구분야와 방법론
- IV. 맺음말 - 가람연구에 대한 승가학 관점에서 몇가지 제언

1. 머리말

‘불교사상 속의 가람’이라는 주제로 기초강연을 요청받았을 때, 스쳐가는 생각에서는 일반적인 학문의 틀 속에서 흔히 ‘시간적인 가람의 변화상에 대한 논제’를 펼치거나 ‘가람의 공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세미나의 주제에 합당한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한국승가교육의 요람인 중앙승가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이 주제를 대한다고 생각하니 가람은 한국 불교 곧 한국 승가생활의 집약체이며, 이러한 집약된 사상과 그 문화적 표현으로서의 가람이 시간적으로 변화를 가지기도 하고, 공간적으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는 큰 가설을 설정하고 논의를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는 본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승가학’ 즉 스님들의 견지에서 사 고하는 불교의 사상과 그 문화를 찾는 방법의 학문풍토에도 부합되는 취지라 생각한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하는 본교 부설 불교학연구원에서 매년 개최하고 그 내용을 결집하여 편찬하는 불교와 사상이라는 논문집도 이러한 연구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가람”이라는 불교문화의 집약체를 단순히 일반학문적인 견지보다 불교관점에서 다각도로 정의해보고 현상을 논의하는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문으로 정립되어 있는 각 연구분야를 보편적 시각이라고 한다면 기초에서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특수한 견지인 불교적 관점, 승가학적인 관점에서는 가람의 여러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로 대두된다고 하겠다.

본 강연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구되는 가람이라는 외형적이고 유형

적인 시각의 연구방법들을 소개하면서 그러한 연구에 승가적인 관점을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한두 요소 제시하는 것으로 기조강연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II. 가람의 의미

‘가람’은 여러 현대사전적 의미로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국어사전에서의 가람은 “승려가 살면서 불도를 닦는 곳”으로 정의하고 僧伽藍, 僧伽藍摩란 단어는 본래 ‘승려가 살면서 불도를 닦는 곳, 즉 사찰’을 나타내는 산스크리트어 ‘saṃghārāma’의 음역어인 ‘승가람마’가 준 말이다. ‘승가람마’는 ‘승가람’으로 줄기도 하고 더 줄어서 ‘가람’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람’의 형태로 많이 쓰인다. 초기 불교 전통에서는 단순히 출가자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장소를 나타내던 말이었는데, 나중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하는 사찰의 총칭이 되었다.”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백과사전(브리태니카)에서는 가람을 “僧院·僧園이라고도 한다. 본래 의미는 衆園으로 여러 승려들이 모여 불도를 닦는 숲 등의 장소를 가리켰는데 나중에는 사원의 건축물을 일컫게 되었다. 절은 … 칠당가람을 갖추지만 … 칠당의 배치와 명칭은 시대·종파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교종사찰은 탑·금당·강당·종루·장경루·승방·식당으로 구성되고, 선종사찰은 불전·법당·승당·고방·산문·서정·욕실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학문적으로 정의되는 가람은 압축해서 설명하려다

보니 오랜 기간 동안 불교사상과 승가의 필요에 따라 구성된 현상을 시간적 변화나 지역의 변화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정의된 듯한 느낌도 크다.

그렇다면 불교 경전 및 신앙에서는 가람을 사전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개략적으로만 살펴보아도 여러 시기에 걸쳐 한역되거나 만들어진 경전에서 가람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세기 대에 편찬된 아시아불교 백과사전격인 『법원주립』의 「가람」 편에는 당시의 여러 구조에 따른 가람을 다양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법원주립』 39권 「가람」 편의 술의부에 “복을 증익시키고 선을 일으키는 것을 일컬어 가람(福生善稱.爲伽藍也)이라고 정의하면서 … 古德의 寺誥에 그 이름이 많다. 혹은 道場이라 하나니, 즉 생이 없는 조정(埏)이란 뜻이다. 혹은 절(寺)이라 하나니, 즉 公埏이란 뜻이다. 혹은 깨끗이 사는 집(淨住舍)이라 하고, 혹은 법을 함께 하는 집(法同舍)이라 하며, 혹은 세간을 벗어나는 집(出世間舍)이라 하고, 혹은 정사(精舍)라 하며, 혹은 청정하기 끝없는 동산(淸淨無極園)이라 하고, 혹은 금강 같은 깨끗한 국토(金剛淨刹)라 하며, 혹은 적멸(寂滅)한 도량이라 하고, 혹은 악을 멀리 떠나는 곳(親近善處)이라 한다. 이것은 모두 그 뜻을 따라 이름을 지은 것으로 각각 나타냄이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

是以古德寺.誥乃有多, 名或名 道場卽無生埏,也或名爲寺,卽公埏也
或名,淨住舍或,名法同舍或名出,世間舍或名精,舍或名淸淨無,極園或名
金剛淨刹或名寂滅道場或名遠離惡處,或名親近善處.竝隨義立,各有所
表.今道俗離居,豈得稱名也

이는 당시의 가람의 유형에 따른 명칭을 정의해 놓은 것으로도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중국 명나라 때 연지대사(1536~1615)가 편찬한 『사미율의』에서는 출가제자가 불법을 섬겨 받들어 가르침에 의거해 수행하는 곳을 칭하고 있다.

즉, 이러한 경전자료를 종합하면 가람은 불교의 주체인 ‘불’과 이를 섬기며 수행하는 ‘승’이 과정에서 형성된 석존의 가르침과 교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방편경전까지 포함한 ‘법’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불, 법, 승의 구성요소는 불교가 성행되는 지역과 시기마다 각 요소의 강조형태에 따라 다양한 가람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자료도 경전에서 그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입적하신 지관스님께서도 일찍이 불교신문에 기고한 바 있으나, 초기경전으로 410년 경에는 한역된 『마하승기율』에는 가람의 구성과 그 비중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탐을 봉사함에 있어서는, 사원경내에 세울 때는 먼저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남쪽과 서쪽에는 세우지 말고, 가능한대로 동쪽이나 북쪽에 세우도록 하라. 僧地에서는 佛地를 침범하지 말고 또한 불지에서는 승지를 점령하지 말라. … 주변에는 담장을 쌓아 격리하고 서쪽과 남쪽에는 侍塔하는 승방을 지어야 한다. 승방의 오수가 불지로 들어 오지 못하게 하며 또한 불지에서 나오는 물도 승방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 塔事者 起僧伽藍時 先預度好地 作塔處 塔不得在南 不得在西 應
在東 應在北 不得僧地侵佛地 佛地不得侵僧地 … 持來汚地 應作垣牆
應在西 若南 作僧坊 不得使僧地水 流入佛地 佛地水 得流入僧地 …

이 자료는 적어도 5세기경에는 승지와 불지를 구분하는 가람구성이

있었음을 경전에서 알 수 있고, 이는 당시의 가람은 불지영역이 승지의 영역보다 더 중심에 있으며 이들은 회랑이나 담장같은 구조물로 둘러싸여 구분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교학적인 가람의 구조는 점차 신앙형태가 변화하여 한반도에 선종사상이 도입되고 ‘승’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면서 점차 불지 중심의 가람은 자연스레 승지 중심 가람의 역할이 확대되며 흔히 이야기하는 선종칠당가람이 형성되게 되었고, 오늘날의 본찰 중심의 가람은 이러한 승의 부분이 강조되어온 가람들의 표현물들인 것이다.

이렇듯 비록 지역마다 시기마다 약간의 문화사적 변화는 보이고 있으나 불교를 중심으로 경전에서 표현되는 가람의 여러 정의를 활용하여 현대사전에서 별다른 시·공간적 구분 없이 함축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III. 가람 및 불교문화에 대한 연구분야와 방법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가람은 불, 승, 법의 삼요소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불교를 신앙화하는 공간이다. 승가에서는 당연히 가람의 구성은 이들 세요소의 작용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이에 비해 학문에서 다루어지는 가람은 어떠한 모습인지 나름대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가람에 대한 연구는 이번 주제발표처럼 ① ‘문헌적 시각’(불교사, 역사학)에서 다루어지기도 하고, 장엄과 관련하여 ② ‘불교미술적’ 시각에서 다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왕조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불교가 성쇠를 이루며 이 과정에서 불교와 민속이 강하게 결합된 요소를 찾아내는 ③ ‘불교민속적 시각’에

서 다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고대의 ④ 건축구조를 찾기 위해 당시의 회화나 조각에서 그 요소를 찾으려는 시도들도 있으며, 법등이 끊어지고 폐허가 된 유지를 ⑤ 고고학적 방법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출토되는 유구와 유물을 통해 옛 가람의 외형을 찾아내는 연구방법도 있다.

① ‘문헌적 시각’에서의 연구는 주로 정치사와 관련된 문헌사료나 개인 사찬에 의한 자료들을 통해 가람의 각 요소들을 얻어내는 연구방법이다. 문헌은 불교사, 인물사 등으로 확대되며, 불교사라는 용어 그대로 주로 가람요소들을 시간적인 관계에서 해석되고 규명된다.

이들 문헌자료중, 사적비나 고승비문의 문헌은 당시 승가상이나 불교상을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다.

② ‘불교미술적’시각은 가람에 활용된 각종 장엄물을 연구대상으로 하는데, 이들도 주로 시간적인 편년관이나 공간적인 지역색 중심의 연구 방식에 치우친 감이 있다. 다른 연구 분야보다 가람의 장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상적 요소를 경전에서 찾아 그 원형을 삼고자 하는 방법론도 함께 사용되고는 있으나 불교 장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비해 불교 장엄의 원형을 찾아가는 연구시도는 시대사적 특징을 찾는 성과에 비해 다소 미흡한 점도 있는 듯하다.

예를 든다면 얼마 전 군위 인각사의 통일신라 가람터에서 불교의례구로 판단되는 청동유물 일괄이 출토된 적이 있다. 이 유물은 조각사적 측면에서는 기존까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시기를 올려볼 수 있는 신자료로서, 국보나 보물급으로 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 청동공양구들이 승가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조각의 우수성이나 시기성의 연구에 비해 부족한 느낌이다.

그 중에 병향로 같은 유물은 불국사 석굴암의 부조상에 그 활용하는 모습이 있다는 정도의 성과 외에 ‘병향로가 당시 계를 내리거나 받는 과정에서의 승려가 수지하는 징표물이다’는 활용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접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승가적 견지에서는 연구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③ ‘불교민속적 시각’은 불교가 지역(국가)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집단고유의 생활형태와 결합되는 부분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연구분야도 중심을 불교에 두고 자료를 분석하느냐, 민속에 중심을 두고 자료를 검토하는가에 따라 불교민속, 민속불교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러한 견지는 한국불교에서 조선시대의 가람과 그 사상을 연구하는 데 불교의 중심이 다른 왕조에 비해 약해진 시대이므로 민속불교적인 요소가 가람의 곳곳에 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가람신의 주제만하더라도 우리의 민속적 시각에서는 가람신과 성황신이 같은 개념의 습합단계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발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가람과 관련해서 당간지주 및 일주문과 성황당(돌무지)의 연관성도 비슷한 예이기도 하다.

보편적인 연구에서는 이 모든 것이 조선시대 불교민속적 요소로 단정내릴 수도 있겠으나, 승가학적인 관점에서라면 좀 더 불교적인 요소를 찾아서 민속적인 부분과 불교적인 부분을 구분하여 검토 할 수 있는 자세와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하겠다.

④ 건축학적 시각은 가람의 외형인 당우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 이 분야는 지붕이나 기둥, 장엄의 위격으로 중심당우와 중심구역을 구분하는 기초적인 분야부터, 시기에 따른 건축부재나 전각의 형태에 대한 자료를 얻어내기 위한 분야이기도 하다. 보편성의 시각에서 본다면 건축분야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통해 많은 당우가 복원되고, 정비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건조물의 복원, 정비에 대한 시기는 고려시대를 아직 소급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성은 통일신라, 삼국시대의 당우 및 가람의 복원이 마치 정치인의 공약으로만 여겨지는 것과도 비슷하다. 승가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각종 변상도나 경전의 회화작품에서 보이는 당우표현에서 해결요소는 찾기 어려운 것일까?

⑤ 가람에 대한 고고학적 시각은 발굴조사를 통해 사찰의 범위를 규명하고, 유물이나 유구의 중복관계를 통해 시간적인 특징을 밝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는 매몰되어 있는 새로운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나, 의외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각종 현상을 고고학적 시각으로만은 규명하기에는 다소 단조로움이 있다.

한 예로 건물지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매납 되어 있는 구조물을 진단구 또는 지진구라는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포함시켜버리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 그 구조물의 당시의궤에 대해서는 해석이 명료하지 않다.

이러한 사례와 비슷한 의례방법을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람에서 당우 특히 불부의? 당우를 건축할 때 경전에서는 ‘작단’이라는 의례를 강조하고 있다.

『불설다라니집경』은 적어도 7세기 경에는 중국 및 아시아에서 통용되었던 경전으로 분류되는데 이에 따르면 7세기 전후 하는 시기의

동아시아 가람에서는 불전당우의 작단의례에 따라 건물기단의 오방위에 결계를 위한 용기매납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건물지 주변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과도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다. 매납되는 유물일부는 ③ ‘불교민속적 시각’에서 해석되어야 할 요소도 있다.

경전에서는 칠보오곡을 의례물로 사용하라고 명시한 것에 비해 그러한 흔적과 함께 한반도의 일반 제사의례인 토제나 철제의 말이 사용되는 점은 한국불교라기보다 한국민속적인 의례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얼마 전 강원도 굴산사지의 승려 탑비전지에서도 확인된 바 있어 흥미롭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단을 다져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중국 당시대에 반랄밀제 스님이 번역한 능엄경의 작단법에서 다루고 있다는 이러한 견해는 5회 세미나에서도 발표된 부분이므로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다.

가람이라는 사역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현상들은 가람을 운영했던 승가에서 나름의 격식 또는 방편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가정한다면 가람에서 확인되는 현상은 방편경전을 통해 승가학적 방법으로도 그 과정을 복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이지만 보편적 시각에서 각 학문분야별 연구법과 이에 보완되면 좋을 듯한 승가학적 해석법을 사족처럼 첨언해 보았다. 가람에 대한 보편적인 연구방법도 계속 개발되어야겠으나, 승가적 견지에서 가람을 종합하고 해석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연구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한 바람으로 본교 총장을 역임하신 종범 스님의 가람에 대한 승가학적인 논문이 2002년 발표된 바 있어 그 목차를 정리해 보고자 한

다.

중범스님 글은 「한국불교의 주요불전과 교단형성」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불교의 가람은 교단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승가적인 견지에서 글을 전개하고 있다.

첫 장에서는 한국불교에서 주로 많이 활용된 주요경전을 나열하고, 다음 장에서는 가람의 기본구조인 당탑의 배치나 내부의 존상의 봉안,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신앙체계, 이와 관련된 수행도법을 설명하면서 가람은 곧 이러한 사상의 집약체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한국불교에는 화엄의법, 법화지의법, 정토의법, 진언의법, 계율의법, 선법의법 등이 모두 담겨져 있으며, 어느 한 부분의 현상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경종을 보내고 있다.

이 논문은 가람을 사상의 표현물로 보고, 그 속에는 시대에 따른 사상들이 융합되어 있는 결집체로 해석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승가적 연구물이라 하겠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러한 승가적 시각은 한걸음 더 나아가 시간적 분석과 사상별 특징을 통해 그 사상유형별 가람의 특징까지 언급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IV. 맺음말 - 가람연구에 대한 승가학 관점에서 몇 가지 제언

이상과 같이 여러 연구진들 앞에서 승가가 생각하는 가람의 연구방법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라는 화두를 제시하여보았다. 기존의 학문적 연구법에 승가적 연구법을 좀 더 추가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으로 이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각 분야별로 가람에 대한 연구 성과에 대한 바람을 승가적 관점에서 제언해 볼까합니다.

가람이라는 주제만을 놓고 볼 때도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가 학문을 위한 성과로서 만족되어야 할 것인지 이러한 성과들이 앞으로 21세기의 승가 가람에 활용되어야 하는 성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기대이다.

건축의 성과가 각 시대별 당우를 올릴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고, 고고학적인 성과들이 새로운 가람축조에 응용되고 활용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불교미술적 성과는 가람을 올바르게 장엄하는데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과거의 현상에서 앞으로의 현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생명력은 어느 분야에서 다룰 것인가를 생각하면 불교의 문화를 다루고 있는 승가에서 담당할 분야라 생각한다.

또한, 과거의 불교가 그러했듯이 현대적인 불교에도 접목될 수 있도록 불교의 장엄도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다.

21세기의 가람은 앞에서 학문적으로 언급한 요소에 ‘생활의 공간’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처님의 공간, 스님들의 수행공간, 나아가 재가자들의 신앙공간으로서의 ‘생활신앙 공간, 문화적인 공간’같은 공간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어는 좀 더 고민해서 다듬어질 필요가 있겠으나 ‘생활신앙 공간’은 오늘날 가람에서 반드시 필요한 곳이며, 증거 없이 추론해 봅니다만 과거에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지 않았나 짐작된다. 그래서 본인은 이 공간이 21세기의 살아있는 영역이며 템플 스테이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유적지인 사지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

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가람에 포함되어 있는 사상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은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 억측일까?

내가 몸담고 있던 금산사의 가람불사 사례를 들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금산사도 백제 법왕 원년에 창건되어 1415년이 된 역사적인 전통사찰이다.

통일신라시대 진표율사께서 방등계단을 설단하셨으며 미륵장육전을 모시고 법상종의 종찰이 되었다.

고려시대 혜덕왕사 등이 유가종의 종찰로 삼고 3원 체제(광교원, 대사고, 봉천원구)의 가람을 배치하여 포교, 역경과 예불의식, 선원과 노스님의 승방 등으로 수행공간을 나누었다.

조선조 임진·정유 양난 때 뇌목당 처영대사가 승병을 일으켜 행주 산성대첩에 참여하였으나 정유재란 때 왜군에 의해서 천여 명의 승병이 전사하고 90여 동의 당우와 산내 40여 개의 암자 등이 전소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선조, 광해군, 인조 대까지 겨우 대사구지역 일부만을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2005년에 주지로 부임한 이래 8년 동안 10여 채의 당우를 복원하였다.

역사적인 금산사는 3원의 구조로 가람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그중 2008년 봉천원구쪽에 선원당우 건립을 위한 불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적광전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을 맞추려고 습지대에 덤프 트럭 천여 대분의 토사를 메우고 박물관 수장고 두 채와 전북 최대 한옥건물인 210평의 뇌목당 처영대사의 문화기념관을 신축하였다.

기념관은 템플 스테이와 신도들의 법회장 등 신행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참고로 대불연 총동문회 법회나 한전반야회 등 전국법회 때도 천여 명의 신도들이 참배 차 방문함으로서 법회장소가 필요했고, 구국 삼화상으로 추존된 뇌묵당 처영대사를 선양하기 위해서였다.

외형적인 불사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격을 갖추어야 하며 큰법당을 중심으로 당우를 배치하고 버려진 땅을 활용하는데 의의를 두고 사찰경계를 고려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의지했다.

가람은 불교의 총체이므로, 그동안의 현상연구들이 불교를 중심으로 재해석되길 희망하며, 불교경전의 내용에서 사상과 원리를 찾아 불교 본연의 현상과 결합된 연구방법들이 개발되길 희망한다.